

2023년 12월 17일(주일) 제166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대림절 셋째 주일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복음 2:13-17)



2024년 섬김위원 임명

오늘 1, 2, 3부 예배 시간

오늘 1, 2, 3부 예배 시간에 2024년 섬김위원을 임명합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교구총회가 열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성탄절기 감사찬양

을 할렐루야찬양대(대장:차도훈 장로)가 담당합니다. 지휘에 최유현 집사, 오르간 차주연 권사, 피아노 김양언 집사, 팀파니 윤주일 안수집사가 수고합니다.

2023년 1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여섯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3째주 주일 저녁찬양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

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교자 신지수 윤동원 장유섭 장유안 최시원
 - 유아세례자 강한나 연다은 연준모 정태오 최이현
- 총 10명

연말연시 일정표

- 12월 17일(주일) - 2024 섬김위원임명 - 새가족환영회 - 각부서 총회 - 성탄절기 감사찬양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4일(주일) - 성탄축하 특별행사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 12월 25일(월) - 성탄새벽예배 (오전 5시, 베들레헴찬양대) - 성탄축하예배 (오전 11시, 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7일(수) - 예결산 당회
- 12월 31일(주일) - 각 부 교회학교 졸업 - 향존직 은퇴 - 장한 어머니상 (다자녀, 개근자녀)시상 - 성경통독 시상 - 예결산 특별제직회 (찬양예배 후) - 송년음악회 - 송구영신예배 (23시 30분, 임마누엘찬양대)
- 1월 7일(주일) - 신년주일 성탄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시) - 예결산 공동의회 (찬양예배 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은총의 기억, 약속된 미래

(신 8:11-20)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에게는 잊어버려도 관장을 일들이나 또 잊어버려야 좋을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시점에서 모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나간 역사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

서 자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나 지극한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생각을 품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마음이 깊이 병들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1.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 하시며 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첫 달인 아빍 월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므로 애굽에서의 학대와 그 모진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뜨거운 태양과 모래사막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바닥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수 4장)

과거 역사의 기억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역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나간 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미래가 없고 희망 부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 평화, 번영 등으로 가는 원리가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날부터 완전한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과 생존을 건 투쟁을 해야 합니다. 400년간 살던 애굽과는 또 다른 문명의 도전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쟁과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 대립의 심각한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이 되고, 가장 십자가 정신에 가깝게 되고,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집요하고 철저한 신앙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2. 교만하지 않아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은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지게 될 교만은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자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방만하고 나태한 삶의 자세로 이어져 더 큰 실패로 연결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

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12-14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넉넉하여 자신의 능력에 만족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넉넉해지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17-18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것도 그들이 잘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 그 조상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 특히 한국교회 전체가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방 후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구호단체 홍보물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진이 한국의 전쟁고아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고 세계의 격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굴지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에 중요한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가졌다고 교만하고 마치 우리 능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처세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이 모든 발전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 때문이요, 그 은혜를 주심도 우리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3. 하나님만 섬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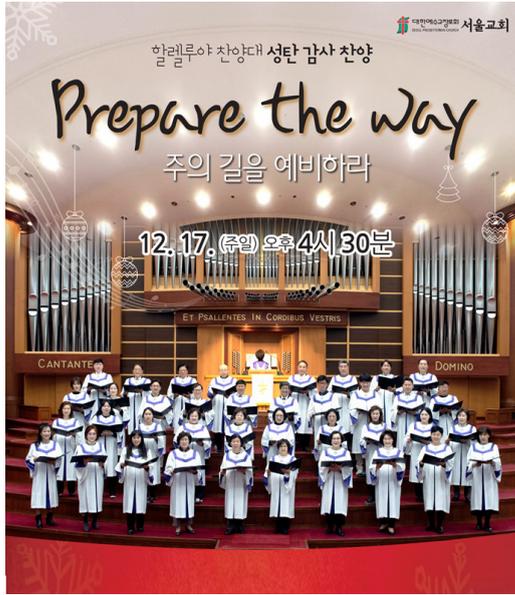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19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압적인 명령으로 받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의 호소로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 청종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라"(신 10:13). 다른 길은 이미 실패로 끝나도록 되어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예정된 그릇된 길로 가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사랑과 수많은 기적으로 돌보신 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선교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유혹을 받아 우상숭배자가 되면 이것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토속신앙들의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약속된 미래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에 우리 모두 감사 찬양을!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차도훈 장로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
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
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
며 오늘 저녁 찬양예배를
할렐루야찬양대는 성탄
축하 특별찬양으로 성탄
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찬양대는 대
원들이 성탄절기 감사찬양을 연습하면서 우리
의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는 나
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세상으로 찾
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절의 주인이

신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행사와 세상의 노래가 아닌 우리를 향하
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들 안에 감출 수 없는 성탄
의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을 온 교회의 성도들
과 함께 하기 위한 소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
다.

그리스도의 계절,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
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로 인
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에게
듣고 기뻐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할렐루
야찬양대 대원들이 드리는 성탄축하 찬양으로
사랑과 화해의 따뜻함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li Deo Gloria!

12월 새가족부 수료자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가족



김선평·안미애·도정자 성도 가족(3교구)

2019년 이사 와서 교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가야겠다고 언제나 마음속 한
구석은 있었으나 코로나가 생겨서 교회
를 못가게 되었고 코로나 완화로 인해
서울교회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결정 후 매일 전도사님의 말씀 메
시지가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버스 안에서 말씀을
읽으니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

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
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순간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족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해서 기분이
더 좋고 기쁩니다.

사랑으로 서울교회에서 따뜻하게 배
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수료 기간 5주 동안
박미라 전도사님과 김애리 선생님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
로)에서는 오늘 주일 2부 예
배 후 802호에서 2023년 7월
부터 12월까지 수료한 새가족
을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갖습니다. 수료자들이 서울교
회에서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구와 다락방, 선교
회, 전도회 등의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도시빈민을 위한 선교사역



민·김선화 선교사입니다.

살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인사 드립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하였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

그들은 가정 형편상 차비와 점심값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 대신 일 자리로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약 2, 3만원이면 한 달 동안의 차비와 점심값이 가능한데 그 돈이 없어서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것이 장학사역입니다. 한 달에 일 인당 1천 페소를 나눠주면서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교회학교 교사들, 예배인도자들(반주, 싱어, 댄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대학 졸업자가 생겼고, 그 졸업자가 취업 후 후배들을 위해 매달 장학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생들도 졸업 후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학생들은 함께 장학재단(Watering Project)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나 외부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마음을 보아 후배들의 꿈을 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장학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생 중심의 장학사역으로 변환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고등학생 장학금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몇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역과 함께 방과 후 공부방도 열었습니다. 사역지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약 1,800명인데 비해 교사의 수는 25명에 불과하며 교실도 부족하여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이 지연되다 보니 그나마 몇 명 있던 교사들도 마닐라로 떠나버린다면서 교사들 월급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러더군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두 명의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지금은 스텝과 대학생들이 자원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방과 더불어 악기 교육도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드럼, 피아노, 음악 기초 교육 등의 교육을 처음에는 선교사 가족이 맡아서 하였으나 이제는 예배 반주자들이 세워져 스스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김선화 선교사가 새로운 교육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음악치료 사역입니다. 유리드믹스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음악적 재능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지금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 사업과 생계지원

한편 마을 환경개선이 필요해 마을 청소사역(Clean & Green)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거리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교우들이 앞장서 마을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청소 자원봉사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해 Livelyhood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가방, 발걸레, 뜨개질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돕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직접적 생계지원을 위해 처음에는 매주 쌀을 나누었지만 현재는 형편상 2주에 한 번 실시하고 있고, 분유 나눔과 장판깎기 사역(단기선교팀 방문 시)을 하고 있습니다.

4. 목회사역

목회사역으로는 주일 예배(약 100명 출석), 교회학교(약 120명 출석), 수요기도회, 성경공부, 심방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모임으로는 청소년부 셀모임, 전도대, 예배준비 모임(싱어, 악기, 댄싱)이 있습니다. 현재 예배당이 없어서 대피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매 주일 새벽부터 많은 음향장비들, 악기들,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부에서 행사가 잡히면 갑자기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12시 이전에 장소를 무조건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배당 부지는 구입한 상태이나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조이폴 바티아교회 교우들이 영적 성장으로 단단한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2.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 사역을 재개하게 하소서.
3. 김선화 선교사 유방암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인해 대상포진을 자주 앓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소서.
4. 박종민 선교사 노내장으로 시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만성외이도염을 앓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소서.
5. 세 자녀들 모두 학업 중(대학생)에 있습니다.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6. 대학부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한 교회,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7. 교회 건축을 통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박종민·김선화 선교사



저의 사역지는 불라칸 주(Bulacan)에 있는 바티아(Batia)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부에서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만든 빈민 이주촌입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에는 3,400세대, 약 1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마닐라베이 인근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팔고 살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서 남자들은 막노동에 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나가고, 여자들은 집에서 부업이나 인근 부촌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역

저희 사역지 인근 2km 내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있었으나 회사의 부도로 물이 공급되지 않아 위생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는 주민들에게 무료진료와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는 의료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UP 의과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 저희의 비전을 보시고 무료로 함께 동역하여 주셨습니다.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왔고 환자 명단은 7,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사를 만나 의료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사역

저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처음 만난 날 꿈이 무엇 이냐고 물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0년 뒤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 니?" 아이들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번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거리를 배회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알아봤더니

무교회주의 그룹의 '성서조선' 그룹의 필화 사건



'성서조선' 창간호 동인들
 뒷줄 왼쪽부터 양인성 함석헌
 앞줄 왼쪽부터 류석동 정상훈 김교신 송두용



우치무라 간조

"종교의 허울을 쓰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깊이 심어서
 백년 후에라도,
 아니 5백년 후에라도
 독립이 될 수 있게 할 터전을
 마련해 두려는 고약한 놈들"
 - 일제 담당 검사 -

"일제 말 한국교회는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
 - 민경배 교수 -

한국교회사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교회주의 그룹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김교신과 함석헌 등의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던 "성서조선"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성서조선」은 1927년 7월 창간된 기독교 잡지로 창간 동인은 김교신, 함석헌을 비롯하여 정상훈, 양인성, 류석동, 송두용 6인이었다. 이들은 조선인 평신도의 입장에서 성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를 잡지로 편찬하였다. 그러다 김교신이 주필을 맡으면서 점차 민족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김교신은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김교신은 손기정의 양정고등학교 재학 시절 그의 선생이자 코치로 연을 맺었다. 양정고에서 김교신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게 한 일제의 방침을 거부하고 한국말로 한국 위인의 이야기를 학생에게 들려주며 식민치하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을 깨웠다. 손기정의 올림픽 우승은 그런 김교신의 민족혼 교육이 낳은 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도쿄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예선에서 김교신은 손기정 앞에서 차에 탄 채 레이스를 코칭했다. 손기정이 1위로 치고 나온 순간부터 김교신은 눈물을 흘리며 제자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훗날 손기정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만 보고 뛰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교신이 「성서조선」에 동인으로 참여하고 주필까지 맡았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김교신이 「성서조선」에 거는 기대는 다음과 같았다.

"아무런대도 너는 조선인이구나.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자보다도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서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그는 조선인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성서라고 믿었고 성서와 조선은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교신이 기독교에서 민족을 살릴 희망을 발견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이었다. 김교신은 도쿄에서 유학하던 중 일본 무교회주의 지도자인 우치무라 간조의 성서연구회에 나가며 7년간 성서를 공부했다. 우치무라는 "두 개의 J(Japan, Jesus)"를 주창하면서 한국인 제자들에게는 너희 나라의 기독교를 만들라고 독려했다. 이 한국인 제자들이 곧 「성서조선」의 창간인들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이미 「조선성서연구회」를 조직하고 한국인의 심령에 뿌리 내릴 기독교를 추구하며 성서연구에 매진하다 귀국 후 잡지를 창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나 종교보국을 강요하며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기 「성서조선」이 무사할 수는 없었다. 결국 1942년 3월 발행된 「성서조선」 제158호에 김교신이 쓴 권두언 "조와(弔蛙, 죽은 개구리를 애도함)"가 문제가 되었다. 이 글은 「성서조선」의 정신을 한 페이지에 압축한 것이었다. 그 후반부를 쉽게 풀어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늦은 가을도 지나서 연못 위에 얽은 얼음이 붙기 시작하자 개구리들의 움직임이 하루하루 느려지다가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시야를 가린 후로는 기도라 찬송의 소리가 저들의 위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만나지 못한 지가 무릇 수개 월여.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들의 두꺼운 얼음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러져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두세 마리 연못의 가장 자리에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질작전대 지난 겨울의 비상한 혹한에 작은 연못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밑바닥에 아직 두어 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으나보다!"

태평양전쟁으로 민족의 시련이 더할 나위 없던 추운 나날 속에서도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며 조선의 민족혼은 끝내 살아남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아무리 은유적 표현이었다고 해도 이미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일제 당국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성서조선」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사상범으로 검거되었고 200여 명의 독자들도 모두 붙잡혀 취조를 받았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성서조선」의 관계자들을 "가장 악질적인 부류"라고 평했다. "종교의 허울을 쓰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깊이 심어서 백년 후에라도, 아니 5백년 후에라도 독립이 될 수 있게 할 터전을 마련해 두려는 고약한 놈들"이라는 것이다. 후에 김교신은 "그때 일본 검사가 보긴 바로 보았거든"이라 말했다.

결국 이듬해 「성서조선」은 폐간되었고 김교신은 흥남의 비료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45년 4월 25일 발진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 민족의 수난역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차례로 일제의 압박에 굴복하고 친일의 길을 걸을 때 교계의 변방에 위치하여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의 신앙운동가들이 기독교를 통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친일과 일제부역에 열중하면서도 정통과 보수를 자처하는 대형 교단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원로 교회사학자 민경배가 일제 말 한국교회를 일컬어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방의 저항과 시련이었다. 오늘날 김교신은 한국교회의 정신이 '전멸은 면했던' 증거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된 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그의 정신을 기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결혼



- 8교구 신랑 김선혁 군
(8교구 김명중 성도·강명신 권사 차남)
신부 신다솔 양
(신문식 집사·손혜주 권사의 장녀)
12월 23일(토) 오후 5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레이스홀

득남



- 5교구 안규현 성도·마미선 성도 득남
안도영 아기 11월 26일
(안인호 장로·이명신 권사 손자)

식사 제공

- 1교구 백도환 장로 석춘희 권사 가정
(장로 임직을 감사드리며)

성경통독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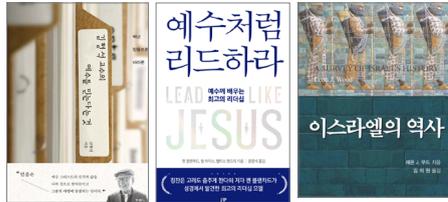
교회는 성경통독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말 성경통독 시상을 합니다.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은 교구 간사나 다락방장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2층 본당 앞에 비치된 '성경통독 수거함'에 성경 읽기 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한은 12월 24일(주일)까지입니다.

[성경통독 시상품]

1독: "백년믿음으로 바라본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2독: 1독 상품+"예수처럼 리드하라"
3독 이상: 2독 상품+"이스라엘의 역사"
[1가족 다독의 경우]
1-3독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 2독	확인
12월18일	월	요일 1-5		12월18일	월	히 1-9	
12월19일	화	요이, 요삼, 유		12월19일	화	히 10-13, 약 1-5	
12월20일	수	계 1-6		12월20일	수	벧전 1-5, 벧후 1-3	
12월21일	목	계 7-12		12월21일	목	요일 1-5, 요이, 요삼, 유	
12월22일	금	계 13-17		12월22일	금	계 1-10	
12월23일	토	계 18-22		12월23일	토	계 11-2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셋째 주간에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거하시고 찾아가신 곳에 저희 마음과 발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 나눔과 구제에 늘 진심인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고난과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고, 분열된 대한민국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